

권두언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중 가장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자연법칙이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며, 달이 차다가 다시 가우는 것,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동물의 생물학적 본능, 계절의 변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그 특성상,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관찰하면 마치 기계적인 정확한 인과과정을 거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전혀 개입이 안되어 있는 듯이 보이기 쉽다.

이러한 전체를 가지고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기계적인 세계관 또는 환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불린다. 이른바 뉴튼이 기초를 놓은 고전 물리학에서의 세계관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일견 보기에는 이 세상이 아무런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아가듯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연히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개재하고 있다.

그러면, 정보하이테크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중의 하나가 반지성주의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현 시대를 살아간다면 공중권세 잡은 어두움의 권세가 노리는 함정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문화조류에 대하여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의 하나임을 믿는다.

정보통신 기술 역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에 속한다. 전화, 팩스, 휴대폰, 삐삐,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이미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로서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히 다가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지 소위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나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등과 같이 위성을 이용하여 전지구상 어디에서든지 통화가 가능한 개인통신 서비스가 현재의 모든 통신수단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만 가장 유력한 것으로 대두된 정도이다. 지금 전화망이나 전용 회선망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물론 이러한 미래의 서비스로 통합이 될 전망이다.

편리한 쪽으로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그랬으며, 비디오도, 자동차도 그랬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편리함에 매료되어 그 안에 숨어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짐작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부정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야 허겁지겁 그 폐해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미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도무지 우리 의도대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 온 사회 전체가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조차도 바꾸려고 든다. 사실 일부는 이미 바뀐 지 오래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어두움의 권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

중문화라는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이단적이고 음란한 영적도전을 상
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 다루어지게 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고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 여겨
진다. 이러한 연구가 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이루어져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란
다.

명륜동 캠퍼스에서
이견창